



(주)GMP, 고객사 CEO 초청 2013 국제 세미나 개최 신제품 발표 · 기술세미나 통해 2014년 마케팅 비전 제시

(주)GMP(대표이사 김양평)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전 세계 40여개국 65명의 고객사 CEO 및 대표를 초빙한 가운데 'GMP 국제 라미네이팅 & 디지털 피니싱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양평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GMP의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2014년 마케팅 비전이 제시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라미네이팅 기계와 라미네이팅 필름 및 디지털 피니싱 솔루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주)GMP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자동 인라인 POD 피니싱 시스템, 커머셜 제품을 비롯한 전자동 라미네이팅 및 슬리팅 기계 등을 선보였다. 또한 독창적인 디지털 및 오프셋 인쇄 후 처리가공 신기술인 슬리킹 시스템을 공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슬리킹 시스템은 (주)GMP가 세계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POD 및 오프셋 인쇄의 장점을 부각시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로 고품격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광택, 홀로그램, 금·은박 스탬핑 효과 기술 등 다양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및 오프셋 피니싱 솔루션이다.

변화하는 고객 요구 적극 반영

이번 세미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주)GMP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동 기계, 롤투롤 기계와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인라인 장비 및 시스템이 핵심 주제가 됐

으며, 고객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특히 HP 인디고와 공동 개발한 은염 인화지 대체 시스템(Silver Halide Replacement System)의 새로운 인라인 장비 '라미마스터-34', POD용 자동 라미네이터인 '프로토펙 오토-540 시리즈', '유료람 시리즈' 및 기계의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한 커머셜용 라미네이터인 '파이오니어 시리즈', 국내외 사진시장 및 옥외 광고 시장을 겨냥한 '그래픽마스터 시리즈' 등의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이 주목 받았다.

은염 인화지 대체 시스템은 (주)GMP와 HP 양사가 약 3년여 동안 공동 개발한 것으로 (주)GMP의 피니싱 관련 첨단기술과 HP 인쇄기의 최신 디지털 인쇄기 기술이 인라인으로 접목된 솔루션이다. 이는 전통 인화방식에서 야기되는 화학약품 처리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익성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것으로 (주)GMP의 대체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환경문제가 없고 기존 인화지의 1/3~1/5가격에 불과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특수 표면효과를 구사할 수 있다.

국제세미나 통해 500만달러 수출계약 기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은 소형 라미네이터에서도 일반 라미네이터뿐만 아니라 (주)GMP가 개발한 슬리킹 솔루션을 이용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롤 방식의 라미네이터에서는 디지털 인쇄물 인쇄물의 접착력을 2배 이상 개선했으며, 급지에서 절단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프로토펙 오토 시리즈’는 작업인원 최소화로 경제성과 실린더의 압력을 강화했다. 이로써 강력한 접착력은 기본이고, (주)GMP에서 새로 개발한 듀얼 히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업용 전기(380V)를 사용해야 했던 것을 가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의 키패드 방식을 개선한 터치버튼 방식을 채용해 내구성과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면서도 우수해진 품질 대비 제품의 원가 상승요인을 개선했다. 이로써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존 라미네이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으로 미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신제품 및 신기술의 보강은 최근 인쇄 및 라미네이터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POD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최적의 비용과 간단한 공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통한 (주)GMP의 위상 강화와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GMP의 제품설계기술, 생산기술의 노하우로 재료비 절감, 획기적인 생산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제품가격을 현실화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GMP의 국제 세미나는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되는 한편,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매출증대에 초석이 되고 있다. (주)GMP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약 500만달러 이상의 제품 수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비전은 경쟁업체 리드·시장 선점

(주)GMP는 2014년을 맞아 HP 인디고의 골드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경쟁업체를 리드하며,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내세웠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페루 기업과 305만달러 규모의 교육 인쇄물을 카드화한 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만에 모든 생산을 조기 완료해 당초 납기보다 선행 출고함으로써 (주)GMP의 유연하고 신속한 생산 대응 체제를 다시 한 번 과시하는 성과를 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1만2000명

에 달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페루 정부가 교육교재의 장기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교육교재의 제작을 (주)GMP에 일임한 것으로, 단일 수주·품목, 단기납품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에 달한다. 현지에서조차 “선명한 컬러 교재이기에 시청각 교재로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주)GMP의 기술과 김양평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에 인쇄업계의 주목을 이끈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리비아 정부사업인 가족증명서 라미네이터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여권전용 코팅기 ‘패스포트-175LSI’를 리비아에 약 1500여 대 수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이 인정된 여권 라미네이터용 전문 기계인 ‘패스포트-175LSI’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 리비아의 사회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사례의 하나로 평가받는 유도가열방식 히팅 롤 설계 제작기술은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국내 E사에 9억4천만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주)GMP는 라미네이터 기술의 선도 기업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우리나라 인쇄산업 및 라미네이터 기술 분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사무 주변기기 제조사 미국 ACCO/GBC와 전략적 제휴로 전 세계 라미네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독일 등지의 현지 판매 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 GMP 브랜드 독자 유통망을 구축, 100여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김양평 회장은 지난 11월 13일 한국기계연구원과의 기술협약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유도가열방식 히팅 롤 설계 제작기술을 이전 받아 상용화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등 산학연기술협력을 통한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매년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GMP의 국제세미나는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된다.